해외유학스님 향학열 뜨겁다

日·英등서 연구성과 잇달아 인정받아
소장파 스님 1백여명 연구분야 다양

◇진월스님

◇지관스님

◇법성스님

해외에서 불교학을 공부하고 귀국한 소장학승들의 연구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젊은 스님들에게 유학 바람이 분 것은 10여년 전부터다. 초기에는 일본으로 유학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영국 인도 스리랑카 등으로 유학지가 바뀌고 있다. 천태 유식 등 불교사상을 한문경전 중심으로 공부하던 경향이 원전중심 연구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유학지의 변화와 연구분야의 다양화 추세는 현재 30대 후반~40대 초반의 소장파 학승들이 이끌고 있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소장파 학승들은 20여명 안팎. 동국대 강사 등으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박사학위 논문 준비를 하거나 수행에 전념하는 스님도 있다. 이들 외에도 세계 각지에서 학구열을 불태우는 스님들은 어림잡아 1백여명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불교계는 유학승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연구 흐름에 대한 체계적 진단은 어려운 실정이다.

아직까지 유학승들이 많이 찾는 곳은 일본이다. 이중에서도, 불교사회복지학과 정토학으로 유명한 경도 불교대학에서 중앙승가대 출신 스님들이 다수 수학하고 있다. 일본의 불교대학은 설립한 종단의 성격에 따라 전문분야가 달라 유학승들은 학교의 특성에 따라 전공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역시 불교학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유학승들의 숫자는 얼마되지 않는다. 영국은 팔리성전협회를 비롯해 옥스퍼드대학의 리차드 콘브릿지 교수 등이 남방불교 팔리성전 연구로 유명해 남방불교를 연구하려는 유학승들이 하나둘 늘고 있다. 인도 델리대 뿌나대 등에도 많은 스님들이 근본불교 연구에서부터 다양한 사상을 담은 산스크리트 원전을 공부하고 있다.

미국 버클리대학에서 조선후기 초의선사 연구로 불교학박사 학위를 딴 진월스님은 "미국에서 불교학 박사학위를 주는 곳은 몇 곳 되지 않는다"며 "시대별 사상별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조선후기는 특히 소외된 분야의 하나였다"고 밝혔다. 진월스님은 "박성배 교수 등 몇몇 학자에 의해 미국 불교학계에 한국불교가 알려졌으나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자료 등이 부족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본이 대정장경을 영역하고 있는 것처럼 외국에서 한국불교를 연구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의 영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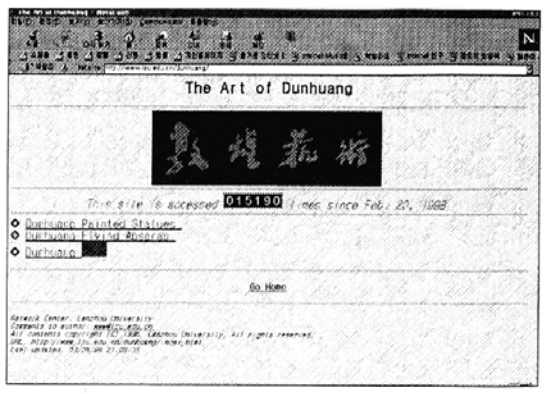
일본 에이지학원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지관스님(길상사 주지)은 박사학위 논문으로 '남방불교 사찰에 있어서 수행과 사찰의 법회의식 관계'를 준비하고 있다. 지관스님은 "남방불교 관련 자료는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며 일본에서는 불교경전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문화 등을 비교조사하는 불교문화학이 일어나고 있는데 연구는 이런 불교문화학에 가깝다"고 말했다.

대만 보인천주교 대학에서 '송대 육산산 선생과 종밀스님의 철학사상 비교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법성스님(포교연구실 사무국장)은 "대만은 학제 등이 까다로워 스님들이 중도하차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동안 접근이 어렵거나 외면당했던 남방불교 조선후기 불교 산스크리트 원전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접근을 통해 새로운 21세기 한국 불교학을 이끌어 갈 스님들의 연구활동이 기대된다.

더불어 각 종단의 체계적인 유학승 지원 육성책은 선행돼야 할 과제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돈황으로 여행

돈황(敦煌). 막고굴로 널리 알려진 이곳을 인터넷으로 방문해 보자. 금세기에 발견된 유적중 최대로 꼽히는 만큼 이들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한 불교미술품 또한 다양하다.

중국 돈황시에 있는 막고굴은 천불동이라고도 하며 지금까지 총 492개의 석굴이 발견됐다. 막고굴은 366년 낙준스님이 조성하기 시작해 북위, 서위, 수, 당, 송, 원에 이르는 13세기까지 1천여년에 걸쳐 만들어졌다. 따라서 시대에 따른 불교미술의 변화도 가늠해 볼 수 있다.

돈황전경-발굴품 색인

▲국제돈황프로젝트

국제돈황프로젝트(이하 IDP) 사이트에는 △IDP 소개 △돈황의 전경 △발굴품 색인 △돈황소식 등이 불자 네티즌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IDP는 중앙아시아 돈황에서 발굴된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공동연구를 고양하기 위해 영국의 대영박물관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적인 돈황연구단체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4세기에 제작된 불상과 8세기 쓰여진 〈금강경〉을 비롯해 돈황내의 갖가지 경전과 불상에 대한 설명과 선명한 화보를 볼 수 있다. 이중 불자에게 널리 알려진 '제57굴 보살상' '제199굴 관음보살상' '제327굴 헌화비천상' 등의 벽화와 석가모니와불 탁본 등이 백미.

이외에도 중국 당나라 시대의 의학서, 남북조시대를 풍자한 벽화, 별자리(星圖) 등 의학·정치학·천문학과 같이 다양한 고대 문화 유산을 열람할 수 있다.

또 세계적인 불교문화유산 돈황석굴을 되찾기 위해 중국이 나서고 있다는 최근 소식도 전해준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문화재 전문가들은 최근 베이징대학에서 회의를 갖고 관계 당국과 힘을 합쳐 잃어버린 돈황유물 되찾기에 전력을 다하기로 결의했다는 것.

돈황석굴은 1900년 중국 감숙성에서 발견돼 4-5만권의 불서들과 약 1천여점의 불과가 봉안돼 있는 것이 확인됐으나 75% 가량이 외국으로 밀반출돼 현재는 돈황유물연구소에 약 3백권의 불서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컴퓨터그래픽 50점 제공

▲돈황 사이트

석굴사원의 불교미술품 중 50여점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공한다.

이중 석굴 275호의 '시비왕본생담'(422~439)은 돈황의 초기 벽화로 석가 전생의 희생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도식화된 안면의 강한 명암이 인상적이다. 또 부처님이 사슴으로 태어났을 때의 전생 이야기를 구현한 257호 석굴의 '므리가 자타가'(8세기)와 사천왕상(석굴 55호), 천문도(天文圖, 석굴 322호) 등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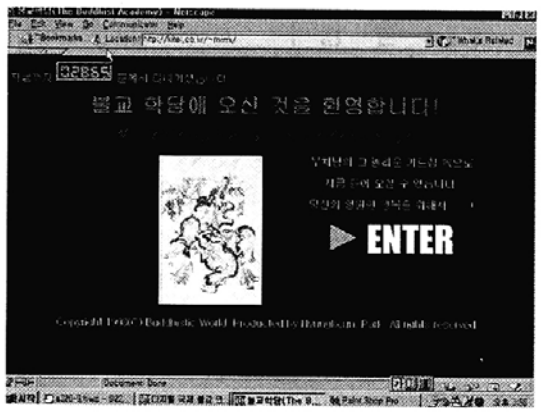
이외에도 270여개의 석굴 벽면에 4천여점이나 그려진 '압사라스(Apsaras)' 중 대표적인 그림 25점을 시대순으로 정리해 놓고 있어, 시대적 변천에 따른 '압사라스'의 변화도 살필 수 있도록 했다. '압사라스'는 고대인들에게 자유와 평화 그리고 행복의 상징이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돈황프로젝트 http://portico.bl.uk/ oioc/dunhuang.html
△돈황 http://www.lzu.edu.cn/dunhuang/

■불교학당 http://kitel.co.kr/~mirrk ■불교교양강좌 http://studybud. buddhism. org

클릭하면 국내 불교학 정보 '보여요'



◇불교학당에 들어가면 경전의 세계와 더불어 불교문학관 산행문답 등 정보가 가득하다.

불교학 정보와 경전 연구 등 불교학술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두 곳이 잇따라 개설돼 불자 네티즌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말 개설된 불교학당, 불교교양강좌는 기초교리입문, 원전 소개 등 알찬 정보로 네티즌들을 찾아가고 있다.

대학생불자들의 모임인 룸비니회원 박형근씨가 운영하는 불교학당은 어린왕자 속에 나타난 불교사상을 고찰한 소고를 비롯해 불교입문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순위를 매기는 한국 WEB 100의 철학부문 종교분과 1위를 차지하기도 한 실속있는 사이트이다. 국내 최초로 불교 홈페이지 만을 대상으로 한 순위서비스인 'Buddhist TOP 10'도 서비스하고 있다. 적멸보궁에서는 부처님 진신사리 사진을 공개하며 예불을 드릴 수 있도록 〈천수경〉 〈반야심경〉 등을 같이 제공한다. 진리의 말씀에는 온라인 법문, 경전의 세계에서는 〈금강경 오가해〉 〈대불수능엄경〉 등을 담았다. 자료실에는 〈대반열반경〉 〈법구경〉 등 14개 경전을 수록했다.

유니텔 불교동호회 회원인 이재윤씨가 제작한 불교교양강좌는 불교입문, 전통강원, 참선, 경전, 교리, 불교정보, 불교문화, 법문, 불교백과사전, 불교자료실 등의 서비스를 한다. 초발심자를 위한 불교입문방에는 기초교리문답을 비롯해 의식과 예절, 신앙생활, 부처님의 생애 등을 담고 있다. 전통강원방은 강원 교과과정 해설과 초발심자경문 사미율의 등이 올려져 있다. 참선방에는 참선을 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선입문, 수선강좌, 참선수행 등을, 경전방에는 한역 한글 영역 〈금강경〉이 그대로 올라가 있다. 불교정보방에는 불교정보센터 불교신문 사찰 역사인물 인명록 전화번호 등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보여준다.

강지연 기자

대각국사 의천 구법행로 특집

'불교춘추' 14호 나와

최근 발간된 〈불교춘추〉 14호는 '동아시아 사상계를 장악한 고려 제일의 선지식 대각국사 의천'을 특집으로 다뤘다. 〈불교춘추〉의 역사인물탐구팀은 행산스님(영산 법화사 법주) 김문경 교수(숭실대) 이영자 교수(동국대) 이준 교수(건국대) 박경하 교수(중앙대) 등이 참석한 의천학술조사단을 구성해 1월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서울을 출발해 청도 판교진 개봉 진강 소주 가흥 항주 소흥 천태 영파로 들어오는 의천의 입송구법루트 2만리를 그대로 추적했다.

의천 특집은 △대담 동아시아 사상계 장악한 의천의 자취 △원효의 계승자, 고려 제일의 선지식-심재열 소장(원효사상연구소) △나당 항로와 의상·의천의 당송길-김문경 교수(숭실대) △의천의 입송구법과 송·여의 불학교류-표지성 연구원(중국 절강대학 한국학연구소) △소동파의 고려관-채원화 원장(반야로차도문화원) △의천 대각국사와 불인 요원선사-이준 교수(건국대) △천태산 구법의 고승들-이영자 교수(동국대) 등을 담고 있다.

학술단신

큰 깨달음 불전역회 창립

경전번역 사업과 경전을 토대로 한 신행운동을 펼쳐나갈 사단법인 큰깨달음불전역회(가칭, 이사장 학담스님)가 18일 창립됐다.

불전역회는 대중의 숫자에 연연하던 신행운동의 구태를 벗고 불자 개개인을 중심으로 불교사상을 배우는 각(覺)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법회에는 김광식 소장(21세기 한국연구소)이 '문명의 전환과 종교의 역할'을 강연했다. 이외에 대승사 개원3주년 기념법회 및 대승백련회 제3기 출범식도 거행됐다.

승가대 논문집 제7집

중앙승가대 논문집 제7집이 나왔다.

7집에는 △초기 교단의 구성과 출가 및 구족계 제도-태원스님 △징관의 오대산 입산과 〈화엄경소초〉의 저작-혜남스님 △법화삼매의 형성과정에 관한 소고-성우스님 △화엄교학의 법계의의 고찰-본각스님 △당대 경교의 전래와 불교-홍선스님 △청소년 정신 건강과 복지정책과의 관계 모색-김응길 △불교사회학의 성립조건-유승무 △영원한 동심의 추구-조명렬 등 9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가야문화' 제11호 발간

가야문화연구소는 〈가야문화〉 제11호를 발간했다.

제11호에는 가야불교의 전래와 문제점을 비롯해 대가야의 체제확립과 왜지진출에 대한 고찰, 가야토기의 지역상에 관한 연구, 대가야의 고분수석에 나타난 거북신앙과 용상석(龍象石) 연구 등 6편의 논문을 담고 있다.

삼대화상 추모 학술회

고려말부터 조선초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삼대선사 지공 나옹 무학선사를 기리는 다례제 및 학술발표회가 5월1일 회암사에서 열린다.

신규탁 교수(연세대)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학술발표회에는 '무학전승의 특징과 그 의미'를 강석근 강사(동국대)가, '기화의 불교변호론'을 박해당 강사(경희대)가 각각 발표한다. 발표에 대한 논평은 이종찬 교수(동국대)와 정영근 교수(서울산업대) 등이 맡았다.

불기 2543년 봉축용품 안내

"최고의 품질로 최상의 만족을 드립니다!"

■ 현수막

1 봉 불기 2543 년 부처님 오신날 축
대한불교 ○○종 ○○사 T.000-0000

2 봉 2543 Buddha's Birthday 부처님 오신날 축
대한불교 ○○종 ○○사 법요식 5월22일 ○○시

3 봉 2543 Buddha's Birthday 부처님 오신날 축
대한불교 ○○종 ○○사 T.000-0000

◆ 규 격 90㎝× 6m 40,000원 90㎝× 8m 50,000원
90㎝×10m 60,000원

■ 등 ※ 등재료(연잎, 등살, 등지)도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 공단등 6㎝ 8㎝ 10.5㎝ 15㎝ 20㎝

◆ 만월등 大 小

◆ 장엄등 10.5㎝ 12㎝ 15㎝ 20㎝

■ T셔츠

◆ 면 100%, 30수 실켓가공
◆ 규 격 성인용 L, LX 6,500원
아동용 S, M 5,500원
• 아래 캐릭터중 선택인쇄 가능합니다.
• 100매 이상 주문시 사찰명 넣어드립니다.

방생 비상 명상 묵언

■ 조끼

◆ 성인용 L, LX 25,000원
◆ 아동용 S, M 20,000원

■ 앞치마

◆ 면 100%
◆ 가 격: 8,000원

■ 손수건

◆ 면 100%
◆ 규 격: 41㎝×41㎝
2,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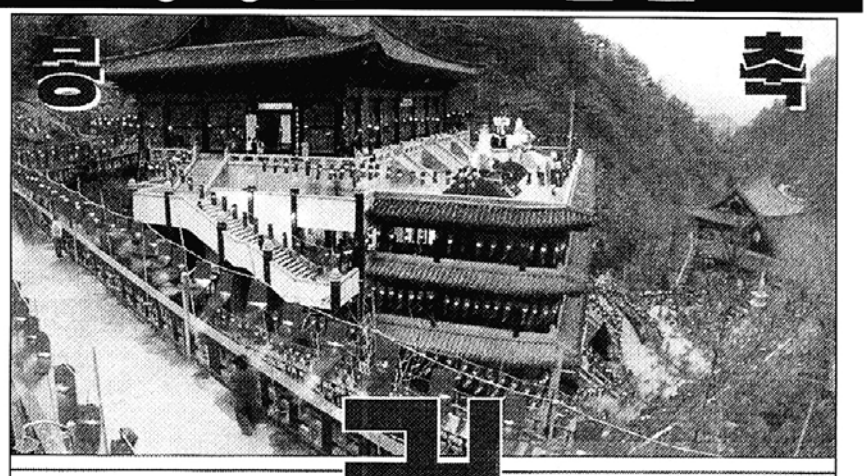
■ 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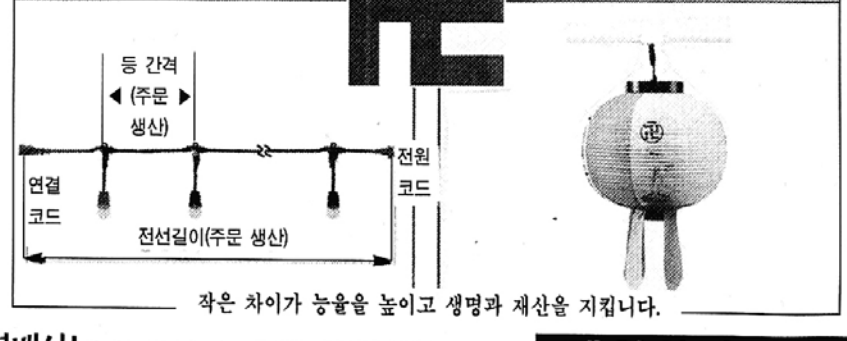
◆ 일반리본 250원
◆ 고급리본 350원
◆ 귀빈용3단 1,000원
• 색상: 연분홍, 노랑, 꽃분홍, 빨강
• 500개 이상 주문시 사찰명 넣어드립니다.

★ 기타 어깨띠, T형 안전전선 등 봉축용품 일체 취급합니다.

불교이벤트 신우기획
서울·마포구 마포동 140(다보빌딩 불교방송 7층)
전화:(02)716-7790(대) 전송:(02)716-7792
온라인 구좌번호(예금주 정영주)
외환은행 189-22-01533-0 농 협 069-12-162672
국민은행 827-21-0538-184 우체국 012245-0191553

연·등·용·전·기·배·선·안·내





작은 차이가 능율을 높이고 생명과 재산을 지킵니다.

연결배선! 일일이 피복을 벗겨 테이프로 감고,
설치·수거·보관 하시는데 얼마나 번거로우셨습니까?
안전하고 편리하게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십시오!

제일안전공사
☎(02)525-5801
※휴일없이 24시간 전화 가능합니다.